

[심층] >> 2면
수강신청 대란

[국제] >> 4면
일본경제 어디로 가나

[기획] >> 5면
도시란, 여전히 지식의 요람인가?

[사람] >> 8면
월드문 일등공신들을 만나다

하버드대학 모의유엔 서울에 오다, 월드문 개회식

지난 16일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생 모의유엔행사 월드문(World Model United Nations)서울 개회식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월드문은 하버드 대학이 매년 세계 다른 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이번 해는 우리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월드문 서울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개회식 △폐회식 △정기회담 △소셜이벤트 △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일주일동안 21개 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했으며 모든 과정은 실제 국제기구의 의사규칙을 적용해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른 유엔총회와는 달리 UN 뿐만 아니라 EU, IMF 등의 다른 국제기구들과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이슈들,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인 이슈들까지 다뤘다. 이번 24회 월드문의 참가국은 역대 최대인 118개국으로, 전 세계 2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김인철 한국외대총장 △박진 한국하버드총동문회장 △최종현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참가해 축하를 전했다. 김인철 총장은 “우리학교가 하버드와 함께 세계 최대 국제 모의유엔을 개최해 매우 기쁘다”며 “미래의 리더가 될 2500여 명의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한



국을 알리기 바라며 모두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뒤이어 조태열 차관은 “이 자리에 모인 국제사회의 미래가 될 세계의 청년들을 환영한다”며 “이번 해는 한반도 분단의 70주년이자 동시에 유엔 창립의 70주년을 맞은 해라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가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열렸다. 글로벌 빌리지는 월드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약 50여개의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는 등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다. 모로코의 대표인 비앙카(Bianca C. Perina)양은 “월드문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카타리나(Katharina Brinck)양 역시 “서울에서 지내며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고 글로벌 빌리지와 같은 멋진 파티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어 파밀라(Pamela Taylor)양은 “서울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기쁘며 동시에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모의유엔총회인 월드문에 참가하게 되는 흔치않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뜻 깊다”고 밝혔다.

박윤진 기자 90yoon@hufs.ac.kr

<바로잡습니다>

이번 달 3일에 발행된 본지 980호의 1면 '2015학년도 학기 성적평가방식 확정' 기사에서 "2015학년도부터는 한 학기에 재수강을 할 수 있는 횟수가 5회로 제한되며" 부분을 "2015학년도부터는 전체 학기 동안 재수강을 할 수 있는 횟수가 5회로 제한되며"로 바로잡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방문, 2015 세계교육포럼 MOU 체결



지난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차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우리 학교는 포럼 기간, 국가별 연례관 등의 자원봉사인력 지원과 자료 공유, 의사소통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황우여 장관은 “한국외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 대학이자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이끌어온 대학”라고 전하며 “글로벌 융·복합 대학으로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가와 세계 발전에 힘을 보탬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날 체결 후 우리학교는 '국가 전략지역언어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우리 학교는 전략지역언어 교육이 국가전략 상 필수적이나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하면 시장논리로 접근할 수 없기에 공공성이 매우 큰 영역임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립 외국어 대학교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 우리 학교의 '국가 전략지역언어 인력양성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만한 사안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황우여 장관은 “국가 전략지역언어 인력양성 사업은 한국외대의 특성을 살리며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와 교육부가 주최하며 5월 19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는 전 세계 교육계 인사 1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교육 분야 최대 국제회의로 2000년 다카르 교육포럼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 이번 포럼을 통해 유네스코가 주도해온 기초 교육 보급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성과와 앞으로 15년간의 교육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요즘 잘 나가는 저 선택

토대체 비결이 뭐야?

기만하 있어도 삼성의 채용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고
트윅글리쉬로 매일매일 엿지하는 영화화를 배우며
열정팬서, 삼성엔터링을 통해 솔루션을 찾는
그 선택의 잘 나가는 비결.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삼성트위터
www.twitter.com/samsung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삼성 카카오프러스친구
카카오 플러스친구>검색>삼성

www.hyundai-elec.com

전동기 산업의 글로벌 리더 - 현대중공업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1위를 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동기
현대중공업의 도전과 혁신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 전동기 해외 수출 1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로 해외 수출 1위 달성
- 국내/해외 인증 최다 보유
ATEX (Zone 1, Zone 2), IECEx, CSA, UL,
IE2 (IEC High Efficiency), IE3 (IEC Premium Efficiency)
- 국내 최초 미국 DOE의 CC인증
엄격한 미국 표준을 충족하는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고효율 전동기

■ 서울 Tel: 02-746-7658, 7673 ■ 울산 Tel: 052-202-8101~7 ■ 부산 Tel: 051-463-4382
■ 광주 Tel: 062-368-9097 ■ 대구 Tel: 053-746-0555

미래를 개척하는
현대중공업

학내브리핑

달라진 경력개발센터
이용하세요

이번 달 25일 글로벌배움터 경력개발센터가 새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홈페이지 개편과 진로경력개발시스템(GPS)을 구축해 보다 쉽게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모바일과 PC 간 연동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진로개발책자를 발행하고 경력개발 관련 강의를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 설정과 경력개발 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취업컨설턴트 확충을 통해 JOB모닝 상담이 가능해져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새로워진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나보세요!

14일부터 새 단장을 마친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작화면에서 학사공지, 장학공지 등 공지사항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페이지 아래에는 모바일 학생증, 식단, 지하철 도착 정보 등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목록이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재민 IT인프라팀장은 “기존에 부족했던 편의성, 가독성, 간편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디자인이 깔끔해져 사용하기 더 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 시간표를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번 달 23일부터 27일까지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취소 기간이 시작된다. 수강신청 취소 기간에 양 배움터 재학생들은 이번 학기 수업을 원하지 않는 강의를 포기할 수 있다. 강의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우리학교 홈페이지 핫 링크(Hot Link)의 ‘수강신청 취소 바로가기’에서 수강신청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4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재학생들은 수강신청 취소 후 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혼돈의 수강신청

이번 해 2학년이 된 김 양은 수강신청에 성공한 줄로만 알았다. “이번 학기는 1,2교시가 없으니까 지각해서 학점 깎일 일은 없겠다”라고 안심하던 차나, 34교시 수업 대신 1,2교시로 옮겨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강의 시간표 조정을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이번학기 수강신청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네르바 인문강좌〉

2월 27일 신입생 수강신청 이후 일부 학생들의 시간표가 강제로 옮겨졌다. 필수교양 수업인 미네르바 인문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넘쳐 학교 측에서 임의로 시간표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원래 미네르바 인문강좌 한 강의 당 제한 인원은 45명이었다. 그런데 화요일 1, 2, 3교시 수업에 전산상으로 대략 14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강신청을 하면서 140명 모두가 수강신청에 성공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77명, 69명 이상이 신청한 강의도 있었다. 이렇게 인원을 초과해 신청된 강좌를 위해 같은 시간에 강의를 추가로 개설하려 했지만 강의실 마련 등의 여건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결국 다른 시간에 추가로 강좌를 개설해 0.01초 단위로 수강신청을 늦게 한 학생부터 추가 강좌로 옮겨졌다. 김미자 서울배움터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어쩔 수 없이 0.01초 단위로 수강신청이 늦은 학생들을 옮겨졌다”며 “당시로서는 가장 공평한 분배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 순으로 옮기다보니 학생들의 강의 시간이 다른 과목과 겹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동시에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기존의 ‘글쓰기’가 ‘미네르바 인문강좌’로 바뀐 데 있다. 지난해까지 졸업을 위한 필수 교양이었던 글쓰기를 대신한 미네르바 인문강좌는 처음 신설된 강의기에 기존 재학생에게마저 생소한 강의다.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졸업 전까지만 수강하면 되지만 선배들의 조언을 듣지 못한 신입생들은 이 강의를 1학년 때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면서 1학년 학생들의 90% 이상이 미네르바 인문강좌를 신청했다. 김 팀장은 “이는 이전에 비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개설 강의 수 자체는 적은 수가 아니지만 1학년 수요가 증가한 데다 글쓰기를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과 글쓰기를 재수강할 학생들까지 몰려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학사종합지원센터는 미네르바 인문강좌 주임교수에게 따로 요청해 강제 이동된 학생들이 신청했던 원래 시간에 강좌를 추가 개설했다. 강좌 수는 38개에서 44개로 늘었고 수강 제한 인원도 본래 45명에서 50명으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이전 시간대로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태국어통번역학과 전공수업 조정〉

미네르바 인문강좌처럼 태국어통번역학과 1, 2학년 전공수업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성공하고도 몇몇 강의의 시간을 옮겨야 하는 상황도 일어났다. 1학년 기초태국어쓰기 수업의 경우 목 3, 4교시에 학생들이 몰려 1, 2교시로 2명이 이동했다. 2학년 과목은 12명이 중급태국어회화 3, 4교시에서 1, 2교시로 옮겨졌다. 뿐만 아니라 중급태국어번역실습 5, 6교시에서 7, 8교시로 5명이, 커뮤니케이션 태국어 5, 6교시에서 7, 8교시로 7명이 수업 시간을 바꿔야 했고 6명의 학생들이 중급태국어작문연습 3, 4교시에서 1, 2교시로 수업 시간을 변경해야 했다.

이렇게 강제로 시간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수업 당 정원이 미리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겨울방학 중 정해진 기간 내에 학교 교과 수업 정원을 제출해야 했지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정원 없이 수강신청이 이뤄지게 됐다. 이후 태국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은 조정된 시간표에 맞춰 수강신청을 변경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번 수강신청에서 시간표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윤설(통번역·태국어통번역 14)양은 “마리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면 시간표를 억지로 바꾸는 회생을 하거나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경영대 증원신청〉

개강 전부터 우리학교 학생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경영대학은 뜨거운 감자였다. 경영대학이 더 이상 증원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수강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공지사항이 뒤늦게 게시됐기 때문이다. 경영대학은 지난해까지 이중전공이나 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수업에 한해 정원이 꽉 차도 증원신청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왔다.

경영대학 측은 추가 인원을 받지 않은 것이 이번 학기만이 아니고 당연한 수강 신청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박지혜 경영학부장은 “현재 경영대학 대부분의 수업이 이뤄지는 사이버관의 강의실은 50명 또는 8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도 없고 이 이상을 수용할 경우 화재나 재해에 대비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아진다”며 “오히려 무리하게 80명 이상이 수업했던 강의들은 책상과 걸

상을 다른 강의실에서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가 어려워졌고 분실까지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다보니 한국경영교육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80명 이상의 강의가 있는 경우 대단위강좌로 계산돼 한국경영교육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2009년 우리학교 경영대학은 이 기준을 획득했으나 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번 학기 5년 재인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인증(국제경영대학 발전협의회인증) 인증 또한 진행 중이다. 국내인증기준과 해외인증기준이 서로 다른 인증이기에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경영대학은 인원 제한을 포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대학도 더 많은 수업을 개설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박지혜 학부장은 “경영대학은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추가 강좌 개설을 요청해 왔다”며 “지난 학기 말 이번 학기 강의를 늘리기 위해 경영대학 전체 교수가 서명해 강좌 개설에 대한 협조 전까지 보냈으나 학교 측에서 강의를 늘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적극적으로 추가 강의를 늘리려 했으나 불가능해지면서 이번 학기 개설 전에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경영대학의 세부전공 코디네이터 교수들이 각 전공 별로 수요를 예측해 그에 맞는 강좌수를 설정하고 개설하기도 했다. 사실 모든 이중전공 수업이 80명 제한을 꼭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원어 강의나 학생들 사이에서 어렵다고 소문난 강의는 미달 수준이기에 기존 개설된 강좌가 모두 차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 인원을 수용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박지혜 학부장은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을 이중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경영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교수진 또한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강좌 증설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경원(경영·경영 12) 전 경영대학 학생회장 또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경영학과를 택해주는 것 역시 고마운 일”이라며 “쾌적한 수업을 위해 경영대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박윤진 기자 90yoon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1. 특징

- 신입생 입학정학금(성적에 따른 차등 지급)
- 성적 장학금(재학생 80%)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학과별, 학기별 선발 지급)
- 한국학과 외국인 장학금
- 외부 기관 장학금(POSCO, KIEP-GPAS 등)
- 본교출신조교 장학금 제도
- 3+1제도(재학중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2. 원서접수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5.4.8(수)~4.16(목)	2015.5.20(수)~5.28(목)

3.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2434
FAX : 02)2173-3369
E-Mail : hufsgsias@hufs.ac.kr
Website : http://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금융학부와 경영정보학과, 개편되나

국제금융학부가 2년만에 개편을 논의 중이다. 국제금융학부는 국제금융학과로, 경영정보학과는 GBT학부(Global Business Technology, 이하 GBT)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제금융학과는 금융관련 학문을 주로 다루며 GBT는 경영학과 경영정보를 합쳐 커리큘럼이 만들어진다. 2014년 설립된 국제금융학부는 기존 경상대학 내 경제학과와 국제경영학과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과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구 평립(경상 · 국제금융 14)군은 “국제금융학부에 대한 기대를 품고 14학번으로 입학했는데 1년만에 학과 개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과연 제대로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며 “학교가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개편안은 현재 교무위원회 심의까지 진행돼 사실상 확정에 가깝다. 최용제 경상대학장은 개편에 앞서 “국제금융학이라고 하는 전공에 경제학, 경영학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은 틀이었고 이번 개편은 그것을 바로잡는 차원이었다”라

고 학과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금융에 특화된 학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다. GBT의 경우 경영학과 IT 분야를 접목해 복합적 경영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기존 경영정보학과 교수들은 모두 GBT 소속으로 변경되며 경영정보학 강의 또한 그대로 GBT에 개설될 계획이지만 아직 정확한 커리큘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 학장은 “국제금융학부로 개편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개편돼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졸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운형(경상 · 국경 10) 경상대학 학생회장은 “학과 개편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과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진기자 90hyung1781@hufs.ac.kr

운동장에 펼쳐진 동아리들의 향연

서울 배움터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박람회 개최



지난 10일부터 11일, 2일간 서울 배움터 운동장에서 동아리박람회가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동아리 박람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를 홍보하는 학생들과 가입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각 동아리는 수상 경력, 트로피 진열, 악기 연주, 춤 등으로 자신의 동아리를 홍보하며 박람회에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한 핸드볼 동아리 조정환(사범 · 독교 11)군은 “핸드볼 동아리는 60년의 오랜 전통과 수상경력, 끈끈한 정이 있는 동아리”라며 “올해는 여러 사람들에게 핸드볼이라는 스포츠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은혜기자 90iron@hufs.ac.kr

우리학교 데이터시각화연구센터, 피보탈 코리아와 산학협력 체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에힘쓰기로

지난 12일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우리학교 데이터시각화연구센터인 한국외대 어드바이스(이하 어드바이스)와 피보탈 코리아가 기업형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피보탈 코리아는 어드바이스에 기술을 전달하고, 어드바이스는 국내 최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한 최대우 센터장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기업 C레벨 임원 대상의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실무자 대상 전문 과정의 ‘버킹밍 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Becoming a Data Scientists)’ 교육 ▲현장 과정 수행 형태의 ‘두잉 데이터 사이언스(Doing Data Science)’교육과정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외 증가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왼쪽부터)피보탈코리아 이영수 대표, 최영수 산학협력단장, 최대우 데이터시각화연구센터장이 참석해 산학협력식을 체결했다.

산학협력 체결식에는 이영수 피보탈코리아 대표, 최영수 산학협력단장, 최대우 어드바이스 센터장이 참석했다. 이영수 대표는 “저비용 고효율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통계학과 교수이기도 한 최대우 단장은 “교육과정을 통해 단순한 보고서 형태가 아닌 콘텐츠를 통한 의

사결정,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빅데이터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빅데이터 기술이 이미 활성화, 고차단계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기술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빅데이터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측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 인사이트 도출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하며 양성된 국내 인재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이 이번 산학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박은혜기자 90iron@hufs.ac.kr

비세그라드 협력체(Visegrad Group) 주요 인사 방문

특별강연과 북코너 개설 축하 행사 열려

이번 달 16일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 슬로바키아외교부 차관 및 비세그라드 협력체 4개국 대사가 방문했다. 비세그라드 협력체란 중앙유럽의 지역 협력체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2000년에 비세그라드 펀드(International Visegrad Fund)를 설립해 문화, 교육, 과학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접경지역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는 피터 부리안(Peter Burian) 슬로바키아 외교부 차관의 특별강연과 비세그라드 북코너 개설 축하행사가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기 전 오전 9시 30분부터 우리학교 부총장의 주요 인사 접견이 있었다. 부총장 접견에는 피터 부리안 외교부 차관과 밀란 라이치악(Milan Lajciak)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그리고 칼라우르스테로바(Karla Wursterova) 비세그라드 펀드 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어 10시부터는 ‘유럽의 심장에서의 성공 스토리’라는 주제로 피터 부리안 외교부 차관의 비세그라드 협력체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후에는 4개국 전공학과를 위한 도서관증식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에 4개국 도서들을 따로 소장하는 비세그라드 북코너(Visegrad 4 Book Corner) 서가가 설치됐다.

이번 행사에는 크쉬슈토프 마이카(Krzysztof Maika) 주한 폴란드



▲이번 행사에는 비세그라드 협력체 4개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만큼 의미있고 중요한 행사였다.

드 대사, 처버 가보르(Csaba Gabor) 주한 헝가리 대사, 토마쉬 후삭(Tomas Husak) 주한 체코 대사 등 비세그라드 협력체 4개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참관한 김대업(동유럽 · 폴란드어 15) 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와도 많은 교류가 있어서 놀랐다”며 “그러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김재준(동유럽 · 폴란드어 15) 군은 “외교부 차관님과 대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 국가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더 많이 교류를 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진형기자 89matteo@hufs.ac.kr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재선거 공식 일정 돌입

한국의국외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재선거 일정	
추천 및 등록 기간	3월 17일 ~ 19일 (3일)
후보 등록 마감 시간	3월 19일 20시
선거 운동 기간	3월 20일 ~ 31일 (12일)
투표일	4월 1일 및 2일
개표일	4월 2일 투표 마감 후 1시간 뒤

▲서울배움터 제 49대 총학생회 재선거 일정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 서울배움터에서 제 49대 총학생회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제 49대 총학생회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발족됐다. 선관위는 김우리(동양어 · 태국어 13) 중앙여대학 학생회장이 선관위원장을, 박민기(영어 · 영문 10) 영여대학 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그 밖의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달 9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17일에서 19일 오후 8시까지 3일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다만 17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각 선거운동 본부는 등록 다음날인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4월 1일, 2일 양일간 투표가 이뤄지고 투표 마감 후 1시간 뒤 개표가 시작된다.

김우리 선관위원장은 “지난 해 선거에서 나타났던 부족한 선관위원 수, 낮은 투표율 등 문제를 개정된 학칙에 따라 선관위원 수의 제한을 없애고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말했다.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이창민
일본어대학
융합일본지역학부 조교수

1929년 10월, 미국 월가의 주식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전염병처럼 전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로 번져 나갔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1930년부터 농산물과 섬유제품을 시작으로 물가가 반 토막이 났고, 도시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했으며, 궁핍해진 농촌지역에서는 어린 딸을 사고파는 반인륜적인 범죄마저 횡행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대공황을 탈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32년경부터 회복세로 돌아선 일본경제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공황을 졸업하게 됐다. 대공황이라는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일본경제를 구출한 것은, 일본의 케인즈(Keynes)라 불리던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의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이었다. 대공황의 암운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을 때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다카하시는 가장 먼저 금본위제를 폐기해 엔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유도했고 동시에 중앙은행의 국채를 인수해 통화량을 증대시켰다. 또한 군사비를 증액하고, 토목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도 감행했다. 이러한 과감한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한 덕분에 일본경제는 대공황이라는, 당시로서는 인류사상 최악의 디플레이션 상태를 단시간에 벗어날 수 있었다.

2012년 12월 제96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된 아베신조(安倍晋三)는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극복에 강한 의욕을 보이며, 실험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의 조속한 실시를 선언했다. 과감한 금융정책, 기동력 있는 재정정책,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 이른바 세 개의 화살로 이뤄진 아베노믹스의 탄생이 그것이다. 세 개의 화살이라고 하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정책들은 엔저, 저금리,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한 다카하시의 경제정책과 많이 닮아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지명한 중앙은행 부총재인 이와타 키쿠오(岩田規久男)는 다카하시 재정을 연구한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아

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난 2년간의 성적을 살펴보면 세 개의 화살 중에 적어도 두 개의 화살은 과녁을 향해 제대로 날아간 듯하다.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장기국채 매입을 통해 1300조원이 넘는 돈을 풀면서 엔저를 유도하고 수출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낮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내놔다. 그 결과 닛케이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2만 선에 육박하고 있으며 물가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기조로 돌아섰다.

대공황을 탈출한 다카하시의 경제정책처럼, 아베노믹스는 장기 디플레이션 시대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담한 금융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물가상승의 기대감을 갖게 해 민간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발하게 한다. 그 결과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에 상승하고 이것이 다시금 소비와 투자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기까지 총수요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성공 시나리오다. 그런데 대담한 금융정책이나 기동력 있는 재정정책은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쓰면 쓸수록 그에 동반되는 위험도 높아진다는 함정이 있다. 즉,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나 재정파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천문학적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기의 선순환을 위해선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성장전략, 이것이 바로 아베 총리가 말하는 세 번째 화살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세 번째 화살은 작년 봄 춘투(春闘)에서 결정된 임금인상을 시작으로 과녁을 향해 힘차게 발사됐다. 지난해 주요 대기업은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인 2.28%의 임금인상을 단행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인해 기업실적이 개선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작년 말 아베정권이 재계에 임금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였다. 그러나 내수활성화를 목표로 힘차게 쏘아올린 세 번째 화살은 아베정권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엔저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고, 지난해 4월 단행한 소비세를

의 인상이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와 임금인상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어떻게든 임금상승을 통해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아베정권으로서는 올해도 작년 수준의 임금인상을 재계에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임금인상이 곧 소비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한 작년 수준의 임금인상이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즈호종합연구소는 올해 실질임금이 전년대비 1.2% 증가해서 4년 만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 번째 화살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재계가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예전처럼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비율보다 공장의 해외이전을 통해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비율이 높다. 해외 생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증대해 온 기업이, 수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국내 종업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또한 해외시장과 관계없는 내수중심의 기업은 엔저의 효과를 누리지도 못한 채 큰 폭의 임금상승을 단행해야 하는 입장이 부담될 수도 있다. 게다가 아베노믹스의 수혜자가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까지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큰 폭의 임금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수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보장도 없다. 2014년 시간제 근무 노동자가 과거 최고인 29.8%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민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데 임금인상 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아베노믹스는 일종의 경제실험이다. 유례없이 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 돈을 풀어가며 죽어가는 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극약처방이 바로 아베노믹스다. 극약처방은 잘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떤 결과로 끝이 나던 경제학 교과서에 길이 남을만한 역사적 실험임에는 틀림없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부다페스트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세르비아에서 야간기차를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했다. 군견과 경찰이 칸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권을 검사한다. 본격적으로 쟁쟁한 조약의 영향 아래로 들어간다고 티를 낸다. 은하철도999가 연상되는 어두운 분위기의 야간열차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으스스하다. 이른 아침의 부다페스트는 썰렁했지만, 기차역은 여행지들로 북적거린다. 환전소와 빵집들, 카페도 나그네들의 허기진 배들을 채워주느라 바쁘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첫날에는 정보도 얻을 겸 주로 투어를 한다. 부다페스트는 큰 도시고 여행자도 많아 투어가 다양하다. 특히 커뮤니즘(Communism) 투어가 있어 공산주의 관련 역사도 들을 수 있다. 유럽에는 프리워킹투어(Free walking tour)라는 투어가 대도시마다 있다. 자격이 있는 가이드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자신의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 지식이 풍부해서 매우 유용하다. 핵심장소를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해주니, 흥미로운 설명에 세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대부분의 '상대적인' 약소국들은 역사인식이 저마다 다르다. 자신들이 한 파괴행위들을 축소하고 피해만을 크게 인식한다. 헝가리도 헝가리-오스트리아 제국시절 발칸전쟁에 간섭하고,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투어 중간중간 주로 러시아에 의한 피지배와 공산주의의 흑역사만을 곱씹는 말들이 들렸다. 역사는 항상 모두가 피해자인 건가.

시내에서 제일 높은 시타델 성을 올랐다. 부다페스트를 흐르는 다뉴브강과 좌우안의 부다&페스트가 다 내려다 보인다. 부다페스트란 도시 이름은 강을 사이에 둔, 부다지와구 페스트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성을 내려오니 안드라시 거리가 축제판이다. 헝가리판 옥토버페스트, 거리를 막아놓고 온갖 맥주와 음식들, 공연들까지 정말 제대로 놓고 있다. 한 손에 반려견, 다른 손에 맥주를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연무대를 둘러싸고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체니 다리 근처 광장에는 경주용 차들이 달릴 준비하고 트랙도 깔려있다.

어부의 요새는 요새라기 보단 각 부족을 상징하는 7개의 뾰족탑 뿐. 노을 진 국회의사당과 다리 야경만 찍고 내려왔다. 오랜만에 감성변태스러운 사진들로 카메라를 채우니 뿌듯하다. 다리 건너 페스트 지역에서 바라본 왕궁과 어부의 요새 야경도 멋지다. 페스트지역 노른자 땅에 있는 성 스테판성당도 한껏 밤의 멋을 부렸다.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성 스테판 성당과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높이가 각각 315피트로 같다. 속세와 영적인 일이 동등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스테판 성당 입구에 쓰여있는 글은 'Ego Sum Via Veritas Et Vita', 라틴어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정도가 된다. 헝가리는 부다페스트 시내 96m이상의 건물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멘트 빌딩들보다, 500년된 건물들 각각의 고고함을 더욱 밝히는 방법을 고수해 야경의 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는 때로 치사하지만,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만드는 눈을 가졌다.

외대학보 91기 수습기자 모집

이번 해 4월 11일 60주년을 맞는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에서 91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60년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역사를 담아온 외대학보, 이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 외대학보사 91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5년 3월 3일(화)~2015년 3월 27일(금)

모집대상 :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지원서 마감일 : 3월 27일(금)

필기시험 및 면접일 : 3월 28일(토)

합격자 발표일 : 3월 29일(일)

• 지원서 수령 및 제출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401호 02-2173-2504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의사항 연락처 : 임수진 편집장(010-4257-9732)

우리학교 도서관, 겉보다 안? 겉만큼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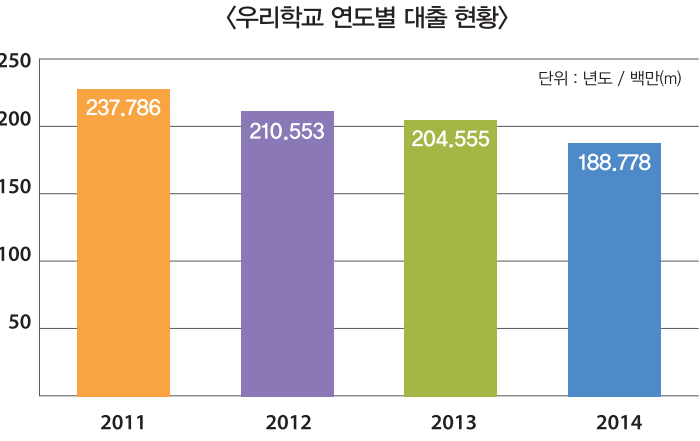
우리학교 중앙 도서관은 현재 제2 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증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외관 상 변화를 주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외관의 문제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서관 의 본질인 '도서'와 '독서'가 아닐까? 다른 대학들과 비교한 우리학교 도서관의 내실을 알아본다.

박은혜 기자 90iron@hufs.ac.kr

◆장서 관리는 어떻게 할까?

도서관이 훼손된 경우는 양 배움터 모두 도서 대출자가 반납을 하면 도서관이 훼손 여부를 따로 점검한다. 또한 방향 중에 훼손된 도서를 선별하기 위해 장서 점검을 실시한다.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책을 복사해 제본을 만들고, 훼손 정도가 심해 책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라면 폐기하고 도서를 새로 구입한다. 소재 불명(분실)의 경우는 장서 구입 기준에 따라 소재 불명이 확실한 자료 중 이용자가 많은 것을 선별해서 새로 구입한다. 우리학교는 장기연체자에게 불이익도 가하고 있다. 장기 연체로 판단 될 경우 전자 우편, SMS, 등기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책 반납 요청을 한다. 그러나 요청 후에도 졸업 20일 전까지 도서를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연체자가 졸업 후 학사 관련 증명서를 땔 수 없도록 불이익을 가한다.

우리학교 연간 1인당 대출 책수(학부생,대학원생)			
연도	2011	2012	2013
책수	15.5	13.3	12.9



◆우리학교 대출 도서 권수 해마다 줄어들어...

제시된 표와 같이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1인이 빌려가는 책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차종상 서울배움터 학술정보팀 팀장은 “대출 도서 권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요즘 학생들의 성향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학술 자료를 찾고 카페에 앉아서 공부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이 장서 구비, 관리 뿐 아니라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도서 대출 권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학생들의 성향 변화나 시설의 문제 뿐만은 아니다. 본지 취재 결과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 장려 프로그램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학교는 현재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에서 다독상 시상, 서울배움터 도서관에서는 다독상, 정독상 시상을 하고 있다. 다독상은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및 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학기 중 최대 대출자에게 주어지며 정독상은 학생들이 추천 도서 정독 후 독후감을 제출하고 그 중 좋은 독후감을 낸 학생에게 주어진다. 김상현 글로벌 배움터 학술정보팀장은 “글로벌 배움터도 정독상을 시상했었지만 재학생들 호응도가 부족해 폐지했다”며 “다독상 시상은 계속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시상 의도를 악용해 책을 과도하게 많이 빌리는 경우도 있다”고 일부 학생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우리학교는 다독, 정독상 시상을 제외한 별다른 독서 장려 프로그램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숭실대학교는 △독서후기클럽 △독서토론세미나 △저자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방향 중에는 △독서여행 △인문학 축제 △치유하는 글쓰기 △인문고전 맛보기 △고전강독 △ 7,000페이지 독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독서후기 클럽은 매달 도서관에서 2권의 도서를 선정후 후 학생들이 신청 이유를 기록하면 그 가운데서 50~80명을 뽑아 도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7,000페이지 독서 프로젝트는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책을 7,000페이지 이상 읽고 매 권마다 후기를 써서 중앙도서관 카페에 올리면 교수위원회로부터 심사와 독서 코칭을 받게 된다. 이러한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 숭실대 재학 중인 박정은 양은 “도서관에서 주관한 여러 프로그램으로 인해 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고 특히 독서 관련 특강이나 강연 프로그램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직접 작가들과 만나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 도서관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도서관 지표별 비교

기관명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학생 1인당 도서수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도서수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수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 구입비
경희대 도서관	76.8	2.0	15.7	168,824
고려대 도서관	90.6	2.4	23.4	221,592
덕성여대 도서관	100.7	3.4	19.1	135,496
서강대 로올라도서관	107.0	2.6	23.4	232,564
서울대 중앙도서관	167.9	2.9	25.6	333,642
서울여대 도서관	81.2	3.1	16.0	143,075
숙명여대 도서관	80.8	2.6	19.8	174,223
숭실대 도서관	60.5	2.7	17.9	134,225
연세대 학술정보원	77.3	2.1	20.5	248,684
이화여대 도서관	74.5	3.0	21.7	218,982
한국외대 도서관	81.7	2.3	17.2	113,249
전국 평균	98.2	3.2	10.7	127,774

◆우리학교 도서관 장서 구입 기준

국내도서	- 국내에서 인쇄물로 출판된 도서 중 내용이 선정적이거나 저급한 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도서(참고도서 포함)는 2부까지 구입하여 비치한다. - 도서가격이 70,000원 이상인 경우 1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도서는 4부까지 구입하여 비치한다. - 지정도서의 경우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 강사의 신청에 따라 8부까지 구입하여 비치한다. - 만화책(시사만화, 학술만화 제외)과 어린이용 도서는 구입하지 않는다. - 도서형태상 서가 비치가 곤란한 도서는 구입하지 않는다.(문제집, 스프링 형태의 도서 등)
국외도서	- 선정된 도서는 1부를 구입한다. - 선정된 도서 중 복사본이 아닌 것을 구입한다. - 지정도서의 경우,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 강사의 신청에 따라 3부까지 구입하여 비치한다. - 자체선정 도서는 각 학문별 리스트를 해당학과로 보내 교수에게 선정을 의뢰한다.
소장도서 중 추가 구입기준	- 판본 회차가 바뀐 자료 - 번역본의 경우 역자가 바뀐 자료 - 오손, 파손, 낙장 등 훼손 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료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 소실된 자료 - 금액 변상 및 소재 불명 자료 중 이용자가 많은 것은 선별 구입 - 발행연도가 10년 이상 지난 자료 중 이용자가 많은 것은 선별 구입 -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사망, 퇴직, 졸업, 제적, 퇴학 등의 사유로 3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선별 구입.

“앞으로도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고 홍보가 돼 참여율도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서강대 ‘로올라도서관’ 주관으로 작년부터 소수 정예로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로올라도서관 창의지성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독서 클럽은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작년인 14학년도에는 14명, 올해 15학년도에는 15명을 선발했다. 이 독서 클럽은 올해 3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로 예정된 긴 호흡의 프로젝트다. 단순히 많은 양의 독서보다는 질 좋은 도서, 독서 후의 심층토론, 독후감 작성에 중점을 둔다. 작년에는 멘토 7명과 도서관 관장의 특강을 9차례 가졌으며 독후감은 단순한 심사가 아닌 글쓰기 지도 교수를 따로 뒀 문법, 표현 등 학생들이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직접 첨삭, 지도했다. 20권 가량의 책을 읽으며 조별모임, 전체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학생들의 글은 ‘책 ‘익은’ 마을 • 2014 (창의지성 1집)’라는 문집으로 재탄생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멘토가 추천한 책은 따로 예산을 확보해 모든 참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도서관 주간 행사와 연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과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응모할 수 있는 독후감 공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우수 작품은 시상과 함께 도서관에서 자체 발행하는 ‘로올라 웹진’에 게재해 많은 학생이 보도록 하고 있다. 이석원 서강대학교 정보봉사팀장은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에서 책을 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물론 단기적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이 독서에 즐거움을 느끼고 단순히 독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독서를 통해 새로운 글을 창출하는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도서관 내실 단단히 하려면 학교, 학생 모두의 노력 필요해

우리학교 도서관은 양 배움터 모두 책정된 예산의 90% 이상을 장서 구입에 쓰고 있다. 이는 새 책 구입에 소홀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경권(경상 • 국제금융 14)군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다보면 내용 파악이 힘들지는 않지만 낱서, 이물질 등으로 독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적이 많다”며 “독서를 하려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라면 훼손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냐”는 의문을 제시했다. 학생들이 이 독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훼손의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대학들의 체계성, 기획성이 명확한 다양한 독서 장려 프로그램들에 비해 우리학교의 프로그램은 매우 미비하다. 차종상 팀장은 “우리학교 학생 수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며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시설, 예산적인 면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독서에 대한 시상만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e-book”을 많이 이용한 학생들에게도 시상할 예정”이라고 시상계획을 밝혔다. 양 배움터 팀장들은 “예산 규모가 확대된다면 독서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시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소희(동양어 • 터키어 14)양은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 도서관이 시설, 규모, 프로그램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학교 도서관이 노력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도 주말에는 컴퓨터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관 대신 도서관 영화 관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그에 호응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를 따르라

필자는 글을 쓰는 재주도, 말 주변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편이다. 그러나 필자가 학보사에 지원해 기자가 된 이유는 새로운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 보고자했기 때문이다. 우리 항상 낮은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새로운 환경과 활동들은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무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많은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것들에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를 믿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웬지 잘할 것 같다'라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도전한 것들은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달리기를 할 때 '나는 느리다, 이제 슬슬 힘이 빠지며 느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빠르게 달릴 수 없다. 심지어 어귀바위보를 할 때마저도 웬지 내가 걸릴 것 같다 싶으면 꼭 그 게임은 지게 돼 있다.

필자는 얼마 전부터 스스로를 믿고 도전하는 연습을 했다. 그 시작은 수업시간이었다. 원어수업을 들을 때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태국어로 수업이 진행될 때 집중을 잠시만이라도 흐트러면 수업 내용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수업을 들으며 '아무래도 이 강의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고쳐먹어봤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수님이 내주시는 활동들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업을 들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열정 없이 포기하는 마음으로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와는 달리 수업내용을 훨씬 수월히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 중에 한 활동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다 글을 자세히 보게 되고 답도 열정적으로 찾아내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예전의 나였다면 겁부터 먹고 해보려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일들을 요즘은 해보고 있다. 학보사 역시 그 중 하나이다. 기사를 쓴다는 것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어려워보였지만 난 학생기자가 하고 싶었기에 그 마음 하나를 믿고 도전했다. 그리고 어느새 나의 기사가 외대학보 한면에 실려 있다. '한계란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실 필자 역시 발전해 가야 할 길이 멀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시작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사실 우리가 실패보다 더 두려워해야하는 것은 원하는 것에 도전하지 못하는 소심함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 보이건 난 해낼 것이고 그래왔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 올 한해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보길 바란다.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한다. 생각보다 긍정적인 태도는 결과를 많이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청춘의 패기로 올해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자!



박윤진기자 90yoon@hufs.ac.kr

어깨너머 듣는 교양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최정윤(미네르바 교양대학 ·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강의)

‘오페라(operas)’라는 단어는 ‘작품’을 뜻하는 라틴어 ‘opus’의 복수형이다. 음악적인 요소에 문학적인 대사, 연극적인 구성과 연기, 미술, 무용 등의 요소들이 어우러진 종합 무대 예술인 오페라는 1597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학자, 문인, 음악가, 화가 등 지식인들에 의해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부활시키기 위한 연구의 결과로 탄생했다. 그렇지만, 오페라가 초창기의 모습대로 상류층 지식인들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렀다면 그 이상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페라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돼 베니스의 상인들에 의해 주도됐고, 당시 오페라 관객의 절반은 평민들이었다. 관객이 그렇게 뒤섞여 있었기에 오페라는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작품을 남기며 여전히 발전해 가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오페라가 어렵다고 말한다. 대사 한 마디 없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외국어로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뚝뚝한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일은 아마 처음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생각보다 많은 오페라 명곡들을 알고 있다. 최근 한 이동통신 광고에서 들려오는 ‘가~가로, 기가로, 기가로...’하는 익숙한 멜로디는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 제일의 이발사’라는 아리아의 일부분이고, 지인들의 결혼식 때마다 신부입장과 함께 듣게 되는 ‘결혼 행진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에 나오는 ‘혼례의 합창’이다. 또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남자 주인공의 구혼 장면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주인공들이 생사를 확인할 때 흘러나오는 노래는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이라는 이중창이고,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이 감옥에 울려 퍼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우리가 광고나 영화를 통해,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듣고 있는 오페라는 수

없이 많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오페라도 특정계층의 문화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주눅 들 필요가 없다. 누구나 영화 ‘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버츠처럼 오페라 극장을 찾기 전엔 오페라 글라스를 쓸 줄도 몰랐다가도 막이 내린 후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페라를 감상하며 감동을 얻는 데 꼭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오페라 역시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느껴진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우선 줄거리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는 하지만 줄거리만 아는 데 그쳐서는 오페라라는 종합예술의 극히 일부만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연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모두 중요하며, 음악과 연기뿐만 아니라 무대 미술과 조명, 의상까지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예술이 오페라이며 이러한 총체적인 체험이 바로 오페라 감상이다. 성악을 비롯한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 문학, 무용, 미술 그리고 기술까지 어떤 요소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오페라 감상을 시작할 것인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작품이든 음악성과 연극성이 뛰어나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을 우선으로 해 다양한 관점으로 감상하면서 오페라의 본질을 쉽게 이해하고 지속적일 감상애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수업의 주목적이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믿는 것들의 가장 깊고 진실한 표현이 노래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오페라 감상을 통해 삶을 더욱 더 풍요로운 감정과 열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 학기를 마칠 때 즈음이면 매일의 커피 값을 아껴 구입한 오페라 공연의 티켓을 쥐고 오페라 극장을 찾아 설레는 마음으로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일시 정지

살랑거리는 봄기운, 따뜻한 캠퍼스



봄기운이 살금살금 찾아오는 우리 학교의 3월. 하나둘을 외투를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한다. 나무계단, 잔디광장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방심한 사이에 찾아오는 감기를 잊지 않길 바란다.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지난호를 말하다

독자위원을 새롭게 맡으며

문지영(동양어 · 터키어14)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지난 호에는 최근 학교의 가장 큰 이슈였던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기사가 비중 있게 실렸다. 1면에 도표가 사용되어 내용이 한 눈에 들어왔고 이해하기 편했다. 하지만 도표가 시선을 끄는 만큼, 도표 안의 오타는 더 눈에 띄었다. 오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또한 이번 성적평가방식으로 인해 폐강강좌가 작년부터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폐강강좌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면 역시 지금까지의 상황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표를 통해 기사 내용이 정리가 잘 된 것 같다. 3면에서 다루어진 교양 교과과정 개편에서는 많이 달라진 교양과목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반대로 4면의 기사에서는 작년에 우리학교에서 있었던 많은 변화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

5면은 우리학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기사로, 외대학보다운 지면이었다. 하지만 <외대인이 만난 세계>에서 화색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많은 색상이 들어간 사진이 첨부돼 사진과 제목 연결이 부자연스러웠다. 사진을 고를 때 기자들의 감각을 더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6면과 7면은 기획기사로 학내의

여러 소식을 알 수 있었다. 특히 7면은 지난 달 졸업시즌에 맞춰 졸업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졸업을 앞둔 독자들을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만든 기사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기사의 제목이 졸업유예자들을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느낌이 든다. 졸업유예는 취업난으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 ‘그들이 몰려온다’는 표현은 졸업유예를 선택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비취지는 어감이다. 기사의 제목이 독자들에게 주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기사의 제목을 정할 때마다 표현, 어감에 좀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

8면은 다가오는 봄에 대한 기사로, 가볍게 읽을 수 있었다. 또한 11면의 십자말풀이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기사를 정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학보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 듯하다. 9면과 12면의 인터뷰도 재미있게 보았다. 인터뷰 형식 덕분에 기사 내용이 끊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는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흥미로운 기사를 기대해본다.

외대학보를 읽는 동안 학보사 기자들이 신문 발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학교의 많은 소식들을 외대학보로부터 접할 수 있어 고마움을 표한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필요하다

윤설(통번역 · 태국어 14)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외대학보의 980호 기사를 보며 필자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사가 너무 정보 전달에만 치중하여 있고 기자의 비판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정보 전달의 역할과 더불어 비판적인 시선이 함께해야 한다.

그런 점에 비롯하여 10면에 위치한 ‘뒷담하는 기자’ 코너는 읽으면서 나 자신이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꼈다. 거두절미하고 정보전달만 하는 딱딱한 기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전체적인 학교의 상황 등을 자신의 생각과 함께 설명한 이야기는, 보는 내내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 됐다.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기사는, 4면에 위치한 ‘뒤돌아보는 2014년, 학내 구성원에게 묻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4면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소통 문제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잘 다룬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치 해리포터 속,

이야기를 꺼내서도, 불러서도 안 되는 이름 볼드모트인 것 마냥 굳이 작년의 사건을 숨겨야 하는 이야기처럼 다루지 않고 드러낸 점과 많은 부처의 입장을 다룬 것은 좋았다. 하지만, 학교의 안일한 태도와 독립적인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직설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있든 기사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편으론 들기도 했다.

학보는 물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로서 위에서 언급한 기사들처럼 독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코너가 더욱 많아진다면 좋겠다. 이에 더하여, 필자는 외대학보에서 사무적이고 딱딱한 기사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대 학생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외대학보의 위치가 외대학우들의 바로 옆에 있는 그날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빈의자

책파와 책, 따

▲지난 학기 처참했던 성적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 교수님이 정해주는 주 교재 말고 다른 책도 스스로 찾아 읽어보기로 말이다. 마침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얼마 이상 사면 하양고 귀여운 인형이나 책의 표지로 만든 에코백을 증정해준다. 이 때다 싶어 개강 전부터 강의계획서와 인터넷 서점을 들락날락 하며 전공과 이중전공을 조금이라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법한 책들을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다. 택배를 받아보니, 상자 안에 책이 쌓여있는 만큼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제 이 책들만 읽으면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경제 수업도, 어렵기만 했던 문학 수업도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번 달 17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요즘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 아이들이 왕따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러한 현상에 ‘책따라는 이름을 붙인 기사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의 눈에 독서는 ‘짜질한 일로 비친다고 전했다. 많은 교육청에서 독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더 많은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 사이에서는 독서가 부정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이는 나타나다고 한다. 하지만 책 읽는 학생이 왕따가 안 된다고 해도 이미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독서가 내신이나 수능 탓에 한참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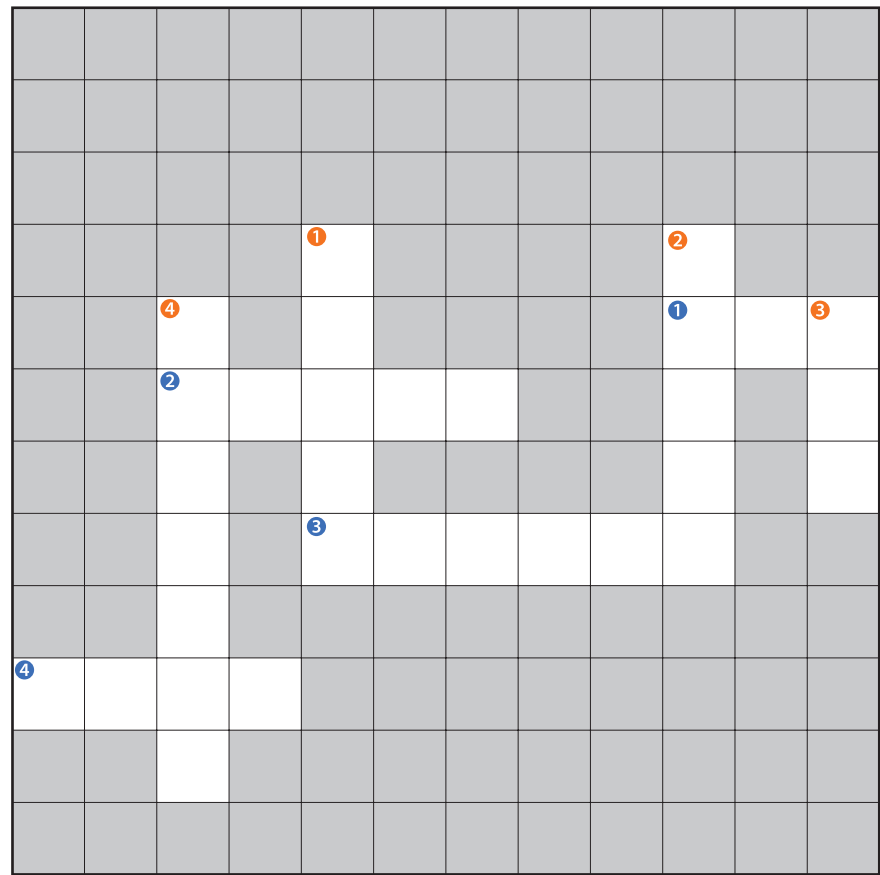
▲이렇게 독서가 부정적인 일이 된 것은 스펙이나 입시, 성적

등에 독서의 가치가 가려져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낮선 것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우리는 책을 읽는 사람보다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대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학술정보원의 ‘2014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해 대학 재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재학생 1명당 연간 대출서도 3년째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우리학교도 전체 대출권수나 1인당 대출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소년 때는 입시 걱정, 대학생이 되면 취업 걱정, 취업이 되면 승진 걱정, 책을 읽을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생각해보니 개강 전 열심히 채워넣었던 장바구니에는 전공이나 이중전공, 혹은 영어처럼 스펙과 관련이 없는 책이 단 한 권도 없었다. 순문학이나 만화책은 장바구니에 넣었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읽으면 되겠지 싶어 그냥 빼버렸다. 정작 먼저 읽으려고 사두었던 책도 개강 후 가방에 넣으려니 스마트폰 충전기, 지갑, 프린트, 다이어리, 주교재 등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 공간이 없다. 들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무거운 것 같아 무심코 책을 다시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니, 우리가 책을 ‘왕따시키는 것은 아닌지 문득 미안해진다.



십자말풀이



가로

1.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정식명칭은 서강대 중앙도서관이 아닌 서강대 000도서관이다. (5면 참조)
2. 이번 달 16일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 00000 협력제 4개국 대사가 방문했다. (3면 참조)
3. 지난 12일 우리학교 데이터시각화연구센터와 000 000는 기업형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교육을 위해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3면 참조)
4. 이소예 월드문 호스피탈리티(점대) 팀장은 모의 유엔 행사를 진행하며 00 00이 제대로 안 돼 어려움을 겪었다. (8면 참조)

세로

1. 지난 16일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열린 부스 파티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00000로 한글을 아름답게 써서 나눠주는 행사를 했다. (8면 참조)
2. 비세그라드 협력체란 중앙유럽의 지역 협력체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00000의 4개국으로 이뤄졌다. (3면 참조)
3. ‘스테판 성당 입구에 쓰여있는 글인 ‘Ego Sum Via Veritas Et Vita’는 000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다. (4면 참조)
4. 최근 한 이동통신 광고에서 들려오는 ‘가~가로, 기가로, 기가로...’ 하는 익숙한 멜로디는 로시니의 오페라 ‘0000 000’ 중 ‘나는 이 거리 제일의 이발사’ 라는 아리아의 일부부터다 (6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호 당첨자부터는 페이스북과 학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980호 당첨자
구민욱, 김혜빈 님 축하합니다!
상품 수령을 위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름, 학번,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사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신은 오늘 몇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나? 대화 상대 중에 직접 얼굴을 마주 하지 않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는 몇 명인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대화창 개수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에 당신 흔적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우리는 대중교통이나 강의실 또는 거리 곳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휴대전화의 1차 기능인 통화 못지 않게 그 부가적 기능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메시지 기능은 비교적 간편하고 이용 요금도 저렴하기에 중 · 장년층도 배워할 통화의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편리한 통신 수단 발달의 장점을 이용하는데 젖어 직접적인 대화를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에는 간접적인 대화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간접적인 대화로는 서로 완벽하게 공감하는 대화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슬픈지 기쁜지, 그 감정은 글로 다 표현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글자가 상대방의 어조나 어투 내지는 감정 등을 표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말에 있어서 어조란, 그 말에 힘을 실어주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핵심인데 결국 모바일 메시지라는 것은 어조를 다 전달할 수는 없기에 대화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몸소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대화라 할 수 있을 않을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 물결 속에 휩쓸려 진정한 대화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진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 중심의 학제 개편 필요해

동양어대학과 서양어대학이 광역화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번 해, 경상대 학 국제금융학부도 학제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2014학년도부터 신설돼 신입생을 선발했던 국제금융학부는 현재 커리큘럼이 너무 많은 학문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금융 중심의 커리큘럼을 위해 학과로 개편될 예정이다.

동양어대학과 서양어대학도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처음으로 광역화 입시 제도를 통한 신입생을 선발했다. 본지 969호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많은 정시 입학생들이 처음부터 소속될 과가 정해져 있는 수시 입학생들에 비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양 단과대학 학생회는 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도 챙기기 위해 멘토를 모집하는 등 이런저런 자구책을 찾아야 했다. 서양어대학은 학생회 산하기구가 학사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서양어대학 전체교수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학사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도 했다. 이렇듯, 또 다시 학제 개편을 함으로써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긍정적으로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동양어대학, 서양어대학, 경상대 국제금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지금 이뤄지는 학제 개편이 이 수많은 학생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학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사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학교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학제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고 깎아내릴 수도 없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의견은 나중에 밀려났다는 것이 이번 학사제도 개편을 씁쓸하게 한다.



만평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임수진 010-4257-9732, 87curious@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임수진
부 장 김다정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월드문의 주역들을 만나보다



하버드대의 학생들이 세계 각 국을 돌아다니며 국제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세계적인 모의유엔인 월드문이 한국을 찾았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문을 기획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총 7명의 사무국원 중 5명의 사무국원인, 사무국장 정현주(통번역 · 영어 12)양, 사무부국장 과 대외협력팀장을 맡은 김호인(LD학부 12)군, 사무부국장과 소셜디렉터를 맡은 김세영(사회 · 정치외교 13)양, 호스피탈리티(접대) 팀장 이소예(사회 · 정치외교 10)양, PR(홍보)팀장 박한결(LD학부 14)양이 참석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1. 월드문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

정현주 1학년 때부터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 하이문에서 사무국 활동을 해왔다. 1학년 2학기 때 부터 월드문 유치를 맡게 됐는데, 2학년 3월, 3학년 3월 모두 월드문을 다녀오며 우리학교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월드문 사무국장까지 맡게 됐다.

김호인 정현주 양과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외대의 모의국제연합 하이문 사무국에 소속돼있었다. 2학년 때는 학술지원팀장까지 맡았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월드문의 유치 사업까지 참여하게 됐다. 유치에 이어 월드문 사무부국장까지 하게 됐다.

김세영 모의유엔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참여해왔다. 대표도 하고, 스태프도 해봤는데 기획을 하는 것에도 호기심이 생겨서 참여하게 됐다. 마침 시기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참가한 것도 있다. 벨기에에서 열렸던 월드문에 같이 가게 돼 우리나라에서 월드문을 유치하자는 제안서를 받아내는 데에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월드문 사무국에도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됐다.

이소예 국제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아 전국대학생모의유엔, 한중일 모의유엔포럼 등 다양한 모의유엔에 참가했다. 그러다 좀 더 시야를 넓히고자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3년도 멜버른 월드문에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유치를 위한 유치 사무국 활동도 해왔다. 2014년 벨기에 월드문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월드문에는 다시 참여해서 기획을 맡게 됐다.

박한결 고등학교 때부터 모의유엔은 알고 있었지만 참여해보지는 못했다. 그러다보니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꼭 해보고 싶었다. 또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주로 맡게 되는 일이 회의를 기획하는 일이다보니 미리 경험을 쌓고자 참여하게 됐다.

2. 사무국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김호인 사무국은 월드문 서울을 기획하는 일을 한다. 크게 주간 회의와 소셜 이벤트로 나뉜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원을 위해서 6개의 팀으로 나누어 일을 한다. 나는 FUNDRAISING(대외협력)팀을 맡았는데, 이 팀은 대외 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후원을 받아오는 팀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정립하는 FINANCE(회계)팀, 편의,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HOSPITALITY(접대)팀,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LOGISTICS(물류지원)팀, 그리고 홍보를 맡은 PR(홍보)팀이 있다. 일반적인 모의유엔은 회의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드문 같은 경우에는 소셜 이벤트라는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가 있어서 다른 모의유엔과는 차별성을 띄는 부분이다.

3. 소셜 이벤트란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준다면?

김세영 사교 파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단순히 즐기지만 하는 파티가 아니라 개척국인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파티이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었다. 소셜이벤트는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매일 열린다. 특히 3월 16일에는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글로벌 빌리지라는 부스 파티를 연다. 26개국에 50여개의 부스를 준비해 본인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무국 쪽에서도 청사초롱과 같은 등을 준비하기도 한 코리안부스를 마련해서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을 받은 전통 매듭을 나누주기도 하고, 캘리그래피로 한글을 아름답게

써서 나눠줄 계획도 있다. 또 부스 행사의 중간 중간에 사물놀이와 같은 전통놀이, 전통 영상을 상영하기도 할 것이다.

4. 모의유엔회의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소예 118개 국적의 학생들이 참가를 했는데 비자 발급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7~80명 정도의 학생들이 비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 전 세계 시차가 다른데, 각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비자 발급 협조 요청을 하고, 각 대사관이 요청한 대로 서류를 전달해줘야 했다. 그 과정에서 시차를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리고 140~50명 정도의 많은 수의 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관리하는 게 힘들기도 했다. 입국부터 유고결석까지 모든 문제를 일대일로 해결해 줘야 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부터 자원봉사자들까지 총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4명의 팀원이 관리하는 게 힘들었다.

김호인 미국에 있는 학생들과 많이 일하다 보니 시차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 각자 잠자는 시간이 다르니까 한국 사무국이 준비를 할 때는 미국 담당자는 자고 있는 때가 많았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얼마나 후원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컸는데,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생각해놓은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문을 많이 보냈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공문 자체도 꼼꼼한 확인을 거쳐 보내야 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다. 다른 기관에서 연락을 받을 때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휴대폰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

박한결 홍보물을 전문적인 회사에 맡길 수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에 자출을 줄이고자 직접 수작업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모르는 것은 책을 보면서 독학으로 홍보물을 만들기도 했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직접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

정현주 학생으로서 공부도 해야 하기에 유엔총회를 준비하면서 역할 갈등도 많았다. 두 개 다 잘 챙기기가 어려워서 힘들었다. 또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한 일을 잊기도 해서 모든 걸 적어놓아야 하기도 했다. 연락도 핸드폰으로 받으면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메일로 받아 확인했다. 118개국에서 오는 친구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도 하나의 스트레스였다.

6. 오랜 시간 애쓴 만큼 월드문 개최가 남다른 것 같다. 소감을 밝힌다면?

김세영 너무 행복하다. 이제 다 안정된 상태인 것 같다. 각 국의 대표들 모두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고, 모든 준비가 끝나 장리가 된 기분이라 좋다. 이제 서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도 돌아볼 수 있고, '수고했다'라는 생각도 든다. 이번에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원하는 일을 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피곤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듣고, 배운 점도 많았다. 앞으로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같은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다.

박한결 평범한 대학생이 겪기 힘든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런 큰 행사를 기획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선배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팀워크도 너무 좋았고, 기획과 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행운이었던 것 같다.



▲김호인(LD학부 12)



▲김세영(사회 · 정치외교 13)



▲이소예(사회 · 정치외교 10)



▲박한결(LD학부 14)



▲정현주(통번역 · 영어 12)

7. 모의유엔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정현주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사실 나의 꿈은 외교관이 아니라 일반직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모의유엔활동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도 앞으로 하고 싶은 직업과 관련이 적더라도,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이라도, 한국어로 진행되는 모의유엔도 많

은 만큼 그런 것들을 찾아 참여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버드대 모의유엔의 사무총장의 전공은 응용수학이다. 수학과여도 모의유엔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이슈는 꼭 국제에서 일할 친구들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의유엔이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참가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소예 모의유엔은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이다. 그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다. 인구 문제부터 미생물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많은 지식을 쌓을 수도 있다. 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이 회의의 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또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이다.

8. 본인이 생각하는 모의유엔회의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김세영 모의유엔을 하면 세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단순히 각자의 생활에 대한 것, 깊이가 없다고 보여지는 단순히 흥미를 기만 한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조금은 진지한 세계적 문제로 확장할 수 있다. 커피를 마시고 분리수거를 할 때마저도 세계의 환경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게 된다. 모의유엔은 모의유엔회의자체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행사이다. 그래서 이 행사를 단순히 모의유엔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의 모임으로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고 싶다. 또 모의유엔이 영어 때문에 꺼려진다면 더욱 참여해야 한다. 영어 실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유엔이다. 일주일 내내 영어만을 쓰고 읽고, 말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늘 수밖에 없다. 인맥도 많이 쌓인다.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소예 하나의 최종 결의안을 내가 대표하는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 외교라는 것이 회의장 자체에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공식적인 자리 역시 중요한 것이다. 서로 친하게 지내면 신뢰도 쌓고, 서로 결의안을 맞춰 갈 때도 편의를 더 봐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아가 공동된 이해관계를 만들어 가기에 유리하다. 그렇게 협력을 만들어 가는 법도 많이 배운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또 외교관이 꿈인데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더욱 값졌다. 그리고 아까 김세영 학우가 말했듯이 세계의 많은 친구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

김호인 월드문 회의는 개회의 이름으로 친구를 만나는 생각, 국가를 넘어서 협력,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이해 그리고 공존에 대한 관점을 강조한다. 문서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도 그런 이름들이 실현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월드문은 단순한 모의유엔 회의가 아닌 실제적인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서 가치로운 것 같다.